

좋은 금요일 부르는 주운, 아이야! 아이야!
광주문화실험
 대표번호 1644-7990
 현대본점, 문정지점, 양산지점, 온양지점, 홍주지점, 동원지점, 동광주지점, 권양지점

광남일보

NEW WORLD
 마크로비오티스
 과학에 예술을 더하라
 뉴월드 퍼크골프 062)515-9600

“중소건설업체 경영환경 개선에 최선” 박경제 대한건설 전남도회장 선출 7
 정철원 군수 “낮은 자세로 담양 발전 이끌러” 제45대 담양군수 취임·공직 업무 돌입 8
 “여수 세계적 관광 ‘핫플’ 거듭날 것” 힐트호텔 등 대형 브랜드 건립 9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위기가정아동 지원 ‘나눔 키오스크’ 1억7000만원 모금·광주시에 전달 14

조간 제7817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4월 4일 금요일 (음력3월7일)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법은 살아 있다...오늘은尹 탄핵 ‘심판의 날’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 심판의 날이 밝았다.

▶관련기사 3·5·6·15면

헌법재판소는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해 선고한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현재는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해 38일 동안 숙의를 거쳤다. 역대 최장 숙의 기간이다.

현재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을 담은 주문을 낭독하는 바로 그 시각이다. 현재는 선고 효력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탄핵심판 결정문 선고 일시 부분에 분 단위를 쓰기로 했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에는 주문을 낭독하기까지 각각 28분, 21분 걸렸다.

현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돼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기간이나 각하 때 윤 대통령이 즉각 업무에 복귀한다.

이번 선고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혼란이 이어지고, 진영 대결이 극심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방인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역대 최장 평의...8인 헌법재판관 ‘인용 vs 기각’ TV생중계·일반인 방청...여야, 대응방안 등 논의

국민 분열과 대의 통상마찰 등 대내외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할 전환점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는 긴장감 속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위한 마지막 조율 작업에 돌입했다. 8인의 헌법재판관은 3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평의를 열어, 결정문 문구 정리와 의견 조율 등 마무리 절차에 집중했다.

앞서 현재는 “선고 당일 평의 없이 곧바로 선고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선고 기일에 불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3일 “윤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현재는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이날 방송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했다.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인터넷 방청 신청자는 9만4000명에 달했다. 방청석은 총 20석에 불과해 경쟁률은 4700대1을 넘을 전망이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방청 경쟁률은 20대1,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769대1이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모든 경찰청의 절반을 동원할 수 있는 ‘옐로 비상’을 서울에 발령하고 현재 주변의 경비 보안을 강화했다.

여야 지도부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국회에서 TV 생중계로 지켜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은 선고 이후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과 당 운영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큰 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현재가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을 해야 판결 이후 갈등과 혼란이 최소화된다. 헌법재판관들이 법리와 원칙, 한 사람의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시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이 반드시 파면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각하고 현재를 향해 탄핵 소추를 인용해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선수별·상임위원별 의원들의 동시다발적인 파면 촉구 1인 시위와 기자회견도 이어졌다. 오후에는 야(野) 5당이 함께 ‘비상사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여러 형태의 지라시(사실 정보지) 중에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선고(4일 오전 11시) 전에 하야할 것이라는 내용까지 나왔다.

국회법에는 탄핵소추 의결서가 현재와 당사자에게 도달이 된 뒤에는 ‘피소추자(탄핵을 당한 자)는 사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노회범 변호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에 대해 “우리 학계는 탄핵 심판 절차, 즉 변론이 종결돼 선고가 임박한 경우에는 탄핵의 본질이나 성격·기능에 따라 ‘탄핵 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며 “따라서 만약 지금 대통령이 사임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선고를 그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지역 대학들 ‘글로벌대’ 마지막 도전

교육부, 내달까지 예비지정 비전으로 발표하며 재도전에 나선다. 호남대와 광주대 역시 올해 사업 추진 방향인 혁신성과 실행 가능성 등을 최우선에 두고 혁신기획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교육부의 ‘글로벌대학 30’ 선정에 두 차례나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지역 대학들이 올해 마지막 도전에 나선다. 지난해 ‘지역 공공형 사립 연합대학’ 설립을 내세워 예비지정됐던 동신대, 초당대, 목포과학대 연합은 올해 본지정에 도전한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5월2일까지 예비지정 신청서를 받고 같은 달 예비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본지정 결과는 9월 발표된다. 김민수 기자 joinus@

美, FTA 맺은 韓에 25% 상호관세 ‘폭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전면적인 글로벌 통상 전쟁을 선포했다. ▶관련기사 7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에 25% 부과기로 발표하는 등 60여개의 국가를 이른바 ‘최악의 침해국’으로 분류, 기본관세 10%에다가 국가별 개별관세를 추가한 고율의 상호관세를 적용하면서 공격 수위를 대폭 끌어올렸다. 다만 한국에 대한 관세율이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서는 26%로 표기돼 혼선이 빚어졌다. 연합뉴스

토·일 신문 쉽다
 온라인 뉴스는 gwangnam.co.kr에서 계속

홈페이지 웹툰 등 교육·홍보용으로 활용 가능

우리의 역사, 문화, 관광을 재밌게 배운다!

스토리텔링 형상화사업

일반인들이 어렵게 느꼈던 역사와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화 된 애니메이션(만화)으로 제작,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관광지를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주)스토리브릿지의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입니다.

QR코드로 쉽고 빠르고 즐겁게!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나레이션된 영상을 QR코드로 만화게시판에 설치하여, 역사·문화관광지를 찾는 수많은 국내외 내방객들이 휴대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남녀노소 모두가 쉽고 편리하게 이해하고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국문QR 영문QR

QR코드를 찍으시면 유튜브를 통해 만화를 더욱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특허청 디자인등록 제 30-0807589

• 미니버스 총력사건 이야기 (설치장소: 광주광역시 동구 주남마을)

스토리브릿지 T 062-521-7779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F 062-416-7080 E story01920@naver.com